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학평가 모델이 필요하다

정 등 현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도서관장

'97년 말에 폭발한 외환파동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가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는 있지만 지난 30~40년 사이에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고, 각종 경제지표들이 거의 서구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눈을 조금 돌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문화의 측면 그리고 공공 윤리적 시민의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아직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니 그간의 성장을 부정할 수 없는 경제영역에서도 그 뿌리는 매우 취약하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내면적인 뿌리가 이처럼 취약한 것은 아직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가치의식이나 문화적 수준 그리고 시민 사회적 윤리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주말 산행을 하면서 각 지역의 높고 낮은 산을 찾다보면 방방곡곡이 금강산 못지 않게 수려한 자연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곤 한다. 그러나 산자락과 계곡은 흉물스럽게 들어선 각종 건축물과 임도(林道)에 찢기고 뜯겨서 그 본래의 아름다움이 심히 훼손되어 가고 있다. 산세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던 산사(山寺)들은 이제 거의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이 들어선 시멘트 사찰 건물은 마치 예쁜 여인의 흰 볼에 특 튀어 오른 검붉은 종기를 연상케 한다.

세계를 돌아보라. 우리의 동해안처럼 조화로운 절경이 있는가. 그러나 그 절경은 부스럼 딱지처럼 덕지덕지 들어선 모텔, 횃집 등으로 급속히 망가져가고 있다. 막상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은 이렇게 파괴해 놓고 많은 국민들은 다른 나라를 휘젓고 다니면서 아까운 달러를 뿌려대고 있다.

어째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 떠오르는 것이 빼들어질 대로 들여져버린 교육내용과 질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오로지 시험답안지 매우는 요령만 훈련시켜 온 우리의 교육은 2세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고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주지 못했고, 시민 사회가 무엇이며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민 사회의 윤리질서가 어떤 것인지도 가르치지 않았다. 빠른 사회변화와 심화돼 가는 노동강도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인간 본래의 자아, 안정된 정서를 기르는 길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 사소한 부주의로 훼손돼 가는 환경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에도 한국의 교육은 눈을 감아 왔다. 세계에 내놓고 자랑해 온 우리 나라 국민의 교육열은 오로지 자녀들의 신분 상승을 염원하는 부모들의 한의 표현이었을 뿐, 후세들이 기품 있는 인격과 교양을 갖추어 손색없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도 배려도

없었다. 학교교육이 교육답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초·중·등학교나 대학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 이루어져 온 불균형된 교육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흔히 경제위기와 관련된 교육문제를 거론할 때는 고도의 첨단기술이나 정보기술의 개발과 처리능력 등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훈련이 새로운 화두가 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사항으로 지금이나마 이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앞서 말한 성숙된 문화와 시민의식까지도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질적인 변화와 향상이 곁들여져야만 한다.

해방 직후 열화 같았던 국민적 교육열을 반영하여 경향 각지에서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대학들은 적절한 교육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빈공지가 있으면 그곳에 학교를 지어 칩판만 걸어 놓고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배출했다. 일부 재단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개인의 치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학생 모집 등을 함으로써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대학들은 그 때의 타성을 여지껏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의 실질적 역할은 교육의 질적 개선을 가로막는 경직된 관료적 타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수년 전부터 도입, 실시되어 온 것이 대학평가제도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언론사 등 다른 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이 평가제의 도입이 나태하고 안일했던 대학사회에 일정한 자극과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

리 사회의 요령 위주, 형식 위주 병폐는 여기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처음 도입기에는 학과별 평가가 실시되었고, 그러다 보니 각 대학에서는 이쪽 돌을 뽑아서 저쪽 언덕을 쌓는 눈가림식 투자가 횡행하여 대학내 다른 학과들의 평균적 회생 위에 특정 학과 하나만의 여건이 조금 나아지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다. 대학교육의 보편적 환경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대학종합평가도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 향상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많다. 그나마 일회성 평가에 그치고마니 먼저 메를 맞은 대학들이 마음놓고 다리 뻗은 채 잠잘 수 있는 안일함을 갖게 하는 면마저 없지 않다.

지금 세계의 투자자본은 한국을 향해 개방화, 투명성 확보, 규제 철폐 등 세계 표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표준에 미달된 대학교육을 방치해 둔다면 경제, 행정제도, 금융의 세계표준화를 서둘러 이룩한다한들 그것은 제2의 위기를 몰고 올 사상누각일 뿐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두뇌훈련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과제이다. **김**

정동현

부산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대 기획연구실장을 역임하였고 미국 노스이스트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한국경제발전론 등을 강의하였다. 주요 저서로 『자본주의 역사와 변모』가 있으며, '80년대 이후 美·日·유럽 경제관계의 변화와 기업형태 및 경영조건'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